하늘 내린 단풍 속 찾은 '참 나'

참불선원 명상힐링캠프 백담사 만해마을서 열려


참불선원이 주관한 명상힐링캠프에 참가한 스님과 재가자들이 가부좌를 틀고 실참하는 모습.

스님 · 재가자 300여 명 동참
초기불교 · 간화선 통합 명상
'참 나' 찾기 위한 집중 실참

"깨치려는 그 마음이 욕심이어서 깨칠 수 없습니다. 다만 할 뿐.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이 뭣고?"

단풍 절정을 맞은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 300여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모여들었다. 올바른 명상법을 배우고 진정한 '참 나'를 찾기 위해서다. 바로 참불선원이 주관하는 명상힐링캠프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10월 26~29일 만해마을 일원서 3박4일간 초기불교 · 간화선 통합명상을 지도하는 명상힐링캠프를 개최했다.

행사 둘째 날인 27일 방문한 만해마을 금강관은 고요했다. 명상실참의 시간. 대중을 지도하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소강당에 울려 퍼졌다.

"나는 존재하는데 불교에서는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뭣고."

캠프에 참가한 대중은 가부좌를 튼 채 두 눈을 감고 화두를 참구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잡념에 간혹 고개를 가로젓는 이도 있었다.

각산 스님은 "집안문제, 사업문제와 같은 내 인생문제들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건 기회다. 내면의 소리가 일어난다"며 "그냥 물어봐라. 그런 다음 멈추라. 그리고 이 숨 쉬는 걸 지켜보는 놈이 무엇인지 보라"고 조언했다.

30분간의 실참이 끝나고 대중은 경행에 나섰다. 울긋불긋 물든 산 아래서 일렬로 차분하게 걷는 이들의 표정은 맑았다. 한 차례 몸과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엔 각산 스님이 붓다의 명상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했다. 스님은 명상 단계를 △마음관찰 △호흡관찰 △호흡 전체보기 △감미로운 호흡 △마음의 보름달-니미따 체험 △선정 △지혜 △열반으로 구분했다.

각산 스님은 "지금 이 순간과 현재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호흡을 이끌면 황홀경의 세계가 열린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오감이 느껴지지 않고 무아지경의 상태가 찾아온다"며 "육신을 가진 채로 육신 없는 체험을 한다. 오로지 절대평온의 고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복의 '아는 마음'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설명이 끝난 뒤 대중은 다시 명상에 잠겼다. 이들의 스케줄은 명상, 또 명상이었다. 쉴 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내려놓음으로써 범부에서 성자의 종성을 확인하고자 매진했다.

참불선원 수석부회장 금현 보살은 "가장 가을다운 곳에서 수행다운 수행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행 열기가 더욱 높아져 속세와 떨어진 채로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면서 "때로는 고요함 속에 참회의 눈물이 흘렀고, 때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머리와 몸으로 이해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자는 아니지만 명상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한 참가자는 "단순히 관심만으로는 명상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참 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지원했다"며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었다. 아등바등하는 문제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3박4일간 대중을 지도한 각산 스님은 "명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불교계에서 이를 충족시킬 만큼 대규모의 행사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초기불교와 간화선을 중심으로 불교명상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인제 만해마을=윤호섭 기자

무소유 정신 아이들에게 알려요

맑고향기롭게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회가 열렸다. 맑고향기롭게는 10월 29일 오전 11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에 앞서 맑고 향기롭게는 9월 24일 길상사 경내에서 100여 어린이가 참여한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박형준 동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홍용희 문학평론가, 함명춘 시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문과 산문 그리고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총 44명의 어린이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에서는 맑고향기롭게 홍보대사인 가수 박창근 씨의 공연과 함께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의 환영인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또 김영배 성북문화재단 이사장의 축사와 박형준 교수의 심사 총평 및 무소유상 수상자에 대한 작품평가가 이어졌다. 시상식 후에는 무소유상 수상자 어린이 4명의 작품발표회도 진행됐다.

홍정근 맑고향기롭게 사무국장은 "무소유 글짓기 대회를 통해 더욱 더 많은 어린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내년에는 어린이날에 맞춰 글짓기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글짓기 대회 수상작은 월간 '맑고 향기롭게' 11월 및 12월 호에 수록된다. 노덕현 기자

동련 11월 25일 어린이지도자연수회

어린이청소년 포교신행단체 동련이 11월 25일과 26일 경주 황룡원에서 제36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인 명상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진다. 음악명상, 쉽게 만들어 활용하는 명상놀이 외에도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가 지휘하는 뉴트리팝스가 음악공연을 선보인다.

두 번째날에는 불국사에서의 아침예불과 함께 '불국사 비밀을 찾아서'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한편, 이날 연수회 입재식에서는 제4대 동련 이사장 이취임식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서산 부석사 108순례단 회향

서산 부석사(회주 주경)는 10월 21일 9년만에 108성지순례를 회향했다. 부석사 108성지순례단(단장 정옥남)이 부석사 설법전에서 개최한 회향법회에는 주경 스님과 주지 원우 스님을 비롯한 회원 1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석사 108성지순례단은 2008년 9월 신도들의 정서함양과 신심고취를 위해 발족했다. 순례단은 송광사를 시작으로 법주사와 금산사, 봉정암, 보리암, 운문사 사리암, 선본사 갓바위 등 전국의 기도도량을 참배했다. 또 인도와 네팔, 라오스, 대만 불광사 등 해외 성지순례도 실시했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 청춘토크콘서트 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수)의 지역별 연합법회를 기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대불련은 11월 9일 고려대 4 · 18 기념관 소극장에서 '정목 스님과 함께하는 청춘예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불교동아리 회원 및 20대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인원은 약 1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청춘예찬 토크콘서트는 새로운 포교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불련 측은 "일반의 청년 대학생에게도 토크콘서트 참가를 개방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학내 불교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포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름다운동행 야행프로젝트

불교계 대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11월 1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은사까지 국내외 빈곤 아이들을 위한 '우리 함께 걸을까'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함께 걸을까'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위험을 예방하고,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열린 행사로 참가비 전액 아이들을 위한 교류기금으로 사용된다.

참가자들은 약 18km 정도의 거리를 4시간 가량 걸으며 나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승가대 실천승가융합연구소 꿈꾸는보리수 학인 스님들이 음성공양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 총동문회 '대불련의 힘' 프로젝트 진행

진모영 감독, '올드 마린보이' 개봉 맞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 이하 대불련 총동문회)는 동문인 진모영 영화감독의 '올드 마린보이' 개봉을 맞아 '대불련의 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진모영 감독은 전남대 89학번 대불련 동문으로 2014년 11월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연출해 다큐영화로는 드물게 전국에서 480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대불련 총동문회는 이 영화 후원을 위해 인증샷 올리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작비 후원 등을 진행했다. 진모영 감독은 2015년 '자랑스런 대불련인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진 감독의 새 영화 개봉에 맞춰 대불련의 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 지역 대불련 동문들이 나서 극장을 대관해 영화시사회를 개최한다.

춘천에서 10월 25일 춘천CGV 10관서 시사회가 진행됐으며, 10월 30일 마산 롯데시네마, 11월 3일 서울 용산CGV에서 시사회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진주와 부산 지역에서도 대불련의 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진모영 감독의 '올드 마린보이'는 탈북민 박명호 씨의 휴로서기를 다룬 영화로 하나뿐인 생명줄인 공기호스에 의지해 죽음을 각오한 머구리 작업에 나서는 명호 씨의 삶을 그렸다. 올드 마린보이는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컬처웨이브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불련 총동문회 측은 "올드마린보이 속 명호씨의 모습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 오늘도 생업 전선에 나서는 모든 아버지들의 자화상이다. 잠수 전 서로 못 볼 수도 있는 부자지간의 눈인사가 먹먹한 여운을 더한다"며 "진모영 감독을 꾸준히 후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